

공회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

본문: 사도행전 4:1-12

-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 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다라

누가는 두 박해의 물결이 모두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의해 시작 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4:1과5:17). 사두개 파의 원조는 마카비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로부터 독립하여 그의 자손 시몬에 의하여 하스몬 왕조를 이루게 되는데 그 때부터 대제사장은 정치적인 권리를 독차지하고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도 로마와 결탁하여 대제사장의 지위를 독점 했다.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 자인가는 가히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이었다. 사두개파들은 신학적으로는 메시아 시대가 마카비 기간에 시작 되었다고 믿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선동가이며 동시에 이단으로 또 평화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며 진리의 적으로 보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에 분개하였으며 괴롭혔으며 심지어 격노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 직업적인 설교가들에 의한 공인되지 않는 설교 였기 때문이다.

성전 맡은자(1), 즉 법과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제사장적 서열로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제 2인자인 성전 치안의 우두머리로 인정을 받아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았다. 그러나 날이 이미 저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를 소집하기에는 너무 늦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을 하룻밤 동안 가두어 두었다(3).

-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70인으로 구성된 의회와 장로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 참여한 대 규모의 재판관이 모였다. 그들은 관례에 따라 반원형으로 앉아 있고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 놓고 심문을 한다(7).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일 정도의 무서운 권세를 가졌던 공회는 얼마든지 시도들에게도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 사도들을 재판하는 공회는 예수님을 판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세 등등한 재판이었다. 사도들이 처한 상황은 실로 감당키 어려운 위험에 처해 있었다.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로서는 이 공회 앞에 꿈쩍 할 수 없는 아주 위험 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베드로의 태도는 얼마나 과거에 비하여 돌변 했는가?

-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게 질문한다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성령이 충만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다. 베드로는 완전히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으로 능력이 넘쳤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부활의 능력으로 나면서 건지 못하게 된자를 살리셨다, 얼마나 관념적인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가?

둘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버린 돌처럼 쓸모 없는 자로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매우 가치있는 주춧돌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예수를 예수님이 부활 시키셨다는 것이다. 오늘 날에도 예수님은 아무 쓸모 없는 돌로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것은 공회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여 버린 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 시키셔서 지극히 높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신 것이다.

셋째,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시다.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위대하신 분을 아직도 공회원들은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들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증거된 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 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눈여겨 보면서 오늘 날에도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한다. 복음을 방해 하는 세력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의 두 가지 주제는 비전과 증인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질 때 우리는 담대히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증인이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 부분적으로나마 땅에서도 실현 되는 것을 맛보고 완전한 비전의 성취로 완전한 연합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